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8호 현대불교
2009년 4월 22일(음력 3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바로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밝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마음의 불을 밝힐 수 있으려면...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며칠 전 선원에서 장엄물 점등식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늘 새기며 살려고 하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점등식을 계기로 저희들도 마음의 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가 보는 등(燈)은 우리의 모습 즉, 이 몸을 등으로 표현했고, 등 속의 촛대는 우리네들 중심을 표현했고, 그 불은 영원한 우리의 불성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처님 오신 날이면 켜는 그 등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 내 마음을 계발시키고 내 마음을 진화시켜서 승화할 수 있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마음이 채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의식, 욕심, 아집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살아나가는 모든 것에 걸리고 자기를 꽂고 매 놓고 삽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가 업식이 돼서 요다음에 그 몸을 벗지 못하고 또 다시 출현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중생이요, 벗어나면 영원히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또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나, 그것을 한생각에 놓으면 그 고통은 다 사라지느니라. 네 아집을 갖지 않고, 욕심이 없고, 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사람이 됐으니 부처도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을 이렇게 배우고 나가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밝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한 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한데 뭉쳐서 그 한 뭉치 태어나게 되는데, 업식은 거기에 다 한데 뭉쳐져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된 거기에서 가지각색의 그 마음을 다 조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고 삽니다. 뚜렷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황대로 사세요. 누가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라고 저렇게 하고, 이거 버리라고 버리고 이렇게 남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로 살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한 철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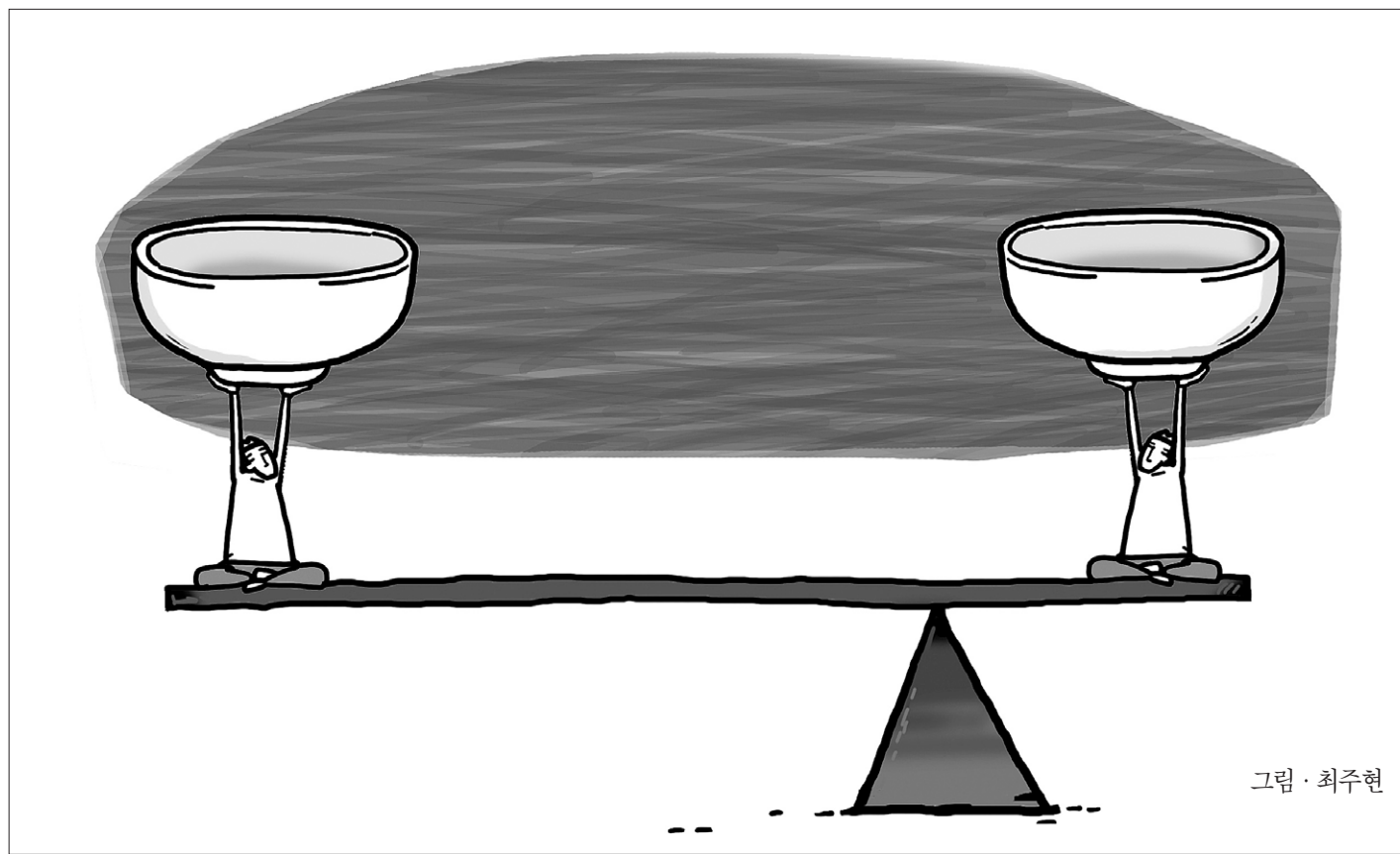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 한 철나의 살림살이, 이 도리를 우리 인간으로서 잘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땀마려우면 땀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하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 삼천大千세계의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가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떠한 날인지도 모르면서 등을 켜고, '우리 이 식구가 잘되게 돼야지.' 하고 등을 켜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버리세요. 등을 켜 때 우리 마음이 항상 온 누리에 같이 하고 있고, 같이 공생하고 같이 공용하고 공체로서 사는 이 세상에 득불장군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온 누리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데도 생각이 있고 보이는 데도 생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도 생명이 있고 보이는 데도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게 돌아가는 이 철나 살림의 생활, 시공이 없는 생활, 이것이 그대로 밝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밝다, 밝지 않다, 컴컴하다 하고 온갖 고(苦)의 생각을 다 하면

서 거기에 걸려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마음,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 이 양면을 다 누가 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스러우니라. 여러분은 마음 한생각이면 자유스럽고, 한생각에 빠지면 바로 고가 붙어서 중생이나라. 그러나 한생각을 잘하라. 너희 맘대로 하는 생각인데 어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이 밝게 계시고 여러분 마음도 밝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고통을 받지 마시고 한 철 즐겁게 사세요. 그렇게 밝게 살아도 한 철인데 어찌 그렇게 이 모습을 가지고 바쁘고 고통스럽게 사십니까. 부처님이 일러 주신 대로 밝고 고통스럽지 않게 나를 버린다면, 아집을 버린다면, 내 것을 버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버리라는 게 그냥 버리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신이 돼야지요.

용광로에 현 쇠를 넣으면 세 쇠로 생신이 돼서 나오지만, 버리라고 놓으니까 이랬다고 해서 그

냥 뺄게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면 생신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여러분의 주인공에서 나오고 주인공으로 들고, 즉 핵이 질량이고 질량이 핵이듯 여러분은 그대로, 우리가 먹고 싶으면 요런 음식도 해 먹고 조런 음식도 해 먹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닥치는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중세계에서 상세계로 승화시키고 하세계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아셔야 합니다. 허무하루를 밝게, 언제 나 영원한 밝음을 가지시고 부처님 오신 날만 등을 켜는 게 아니라 인등을 항상 켜시고 계산하면 오늘은 항상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내 마음을 밝혀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

▶▶▶▶▶

수행하고 싶은데 스님, 이 줄음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쓰든간에 '나'를 만나면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자 애인을 생각하고 여자들이 남자 애인을 그리워하듯 그런 식으로 방편을 쓰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방법을 대기도 하거든요.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생각에 '애인이다' 이러면 아예 그냥 가까운 마음이 들어가죠. 그런 방편이지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정이지. 그래서 판 사람을 그려서는 안 되죠. 자기 내공의 그 주인, 내 불성이 있는 주인과 내 몸이 있는 주인과 한데 합쳐지기만 하면 그 물그릇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도 졸리다거나 결국은 이런 방법을 댈 거죠. 예를 들면 대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통을 이렇게 이 끄트머리만 삐죽하게 해서 턱 밑에다 딱 대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졸아도 여기 딱 찰라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걸 놓고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선지식은 그랬죠. 대통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좀 어리석은 듯 해야죠. 그 구멍 뚫린 속에서 소 눈같이 나올 테니 이것을 꼭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꼭 그걸 노려보고, 하여튼 한 시도 눈을 다른 데 두어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열 시간을 앉아 있다 해도 바깥에다 두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에다, 내공에다 집중을 해야지. 그러곤 자꾸 이렇게 탁탁 쳐주는 겁니다. 주인공에다, 탁탁 쳐 주면 그게 결국은 풀리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애절복절하는 거죠. 애절복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애절하게...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양이 쥐 노리듯, 아주 배고픈 어린애가 엄마 젖 찾듯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이견 꼭 띄게끔 돼 있다고요.

그리고 수행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자기가 이런 게 불편하다 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것을 내공에다 그냥 놔 버리세요. 일임시켜 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놔두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겨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정

▶▶▶▶▶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굶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에게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지향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처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강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저수 대진 합장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복, 모듬복 · 장고 · 징 ·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지부설이 남다른 점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로 다룹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전예수재특강안내문

귀의삼보 하옵고
춘삼월 봄을 맞이하여 모두에게 부처님 광명이 두루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윤달을 맞이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전통불교의식 중에 하나인 생전예수재를 특강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여법하게 생전예수재 의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강날짜 및 시간 : 5월달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7시

2009년 5월 4일 (월요일, 음 4월 10일) 6일 (수요일, 음 4월 12일)
11일 (월요일, 음 4월 17일) 13일 (수요일, 음 4월 19일)
18일 (월요일, 음 4월 24일) 20일 (수요일, 음 4월 26일)
25일 (월요일, 음 5월 2일) 27일 (수요일, 음 5월 4일)

◇ 시 간 : 오후 3시 ~ 7시

◇ 제출서류 : 특강신청서 (행정실비치)

◇ 특강수료료 : 300,000원 (삼심만원정)

◇ 문 의 : 02)392-3234

* 생전예수재 의식을 필요로 하시는 스님은 누구나 수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합장